



自然公園과 野生鳥〈29〉

## 붉은 부리 갈매기

- 학명 *Larus ridibundus sibiricus*
- 영명 Block-headed Gull

항구나 강을 넘나드는 갈매기는 낙천적이고 싱그러워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나 동요, 가요에서도 그들을 칭송해 왔다.

우리 나라에 사는 갈매기 종류가 15종이나 된다는 사실을 실제 그 모양새나 생태가 엇비슷하여 식별이 곤란한

것이 사실이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가장 흔한 꿩이갈매기는 사계절을 이 땅에서 사는 텃새이고 나머지 종류는 겨울철새로 도래하고 여름철새로 오는 종류도 있다.

남부지방의 철새 탐사를 다니다 보면 향구나 포구, 개울에서 비상하는 한 무리의 체구가 작은 단아한 생김새의 갈매기를 흔히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이 새가 붉은부리갈매기이다.

붉은부리갈매기는 이름 그대로 붉은 부리가 매력적이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유순한 성격을 지녀 더욱 사랑스럽다.

늦봄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월동을 끝내고 시베리아의 번식지에 당도할 즈음이면 머리와 얼굴이 검은색으로 변신을 하는데 딱 종류의 새처럼 색깔이 변하는 특징이 있다.

대다수의 갈매기 종류들은 무리 생활을 하기 좋아하는데 특히 이 붉은부리갈매기는 떼지어 살기를 즐긴다.

동해안의 끝자락이기는 하지만

자갈치, 낙동강 하구, 김해, 녹산, 가덕도로 들어가는 용원포구, 섬진강하구, 영산강 하구, 군산항과 금강 하류 등지가 그들의 서식밀도가 높은 서식지인데, 개울을 따라 내륙 깊숙이 표행해 들어 올 때도 있다.

향구나 포구에 버려진 생선찌꺼기가 주식이지만 맑은 담수에서 먹이를 찾기도 좋아하는데 타 종류의 갈매기보다는 다소 민물을 좋아하는 생태는 이 새만의 특징이다.

시베리아 넓은 지역의 툰드라지에서 번식하는 겨울철새이지만 여느 철새와는 달리 번식기가 임박한 5월까지 머무는 것은 아직까지 이들이 살만한 자연이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글·사진 李正雨  
(삼육대교수·동서조류연구소장)